

'5·18 왜곡·폄훼' 소송 등 이어져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진두환 전 대통령과 지만원씨에 대한 소송과 형사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은 자신을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극우논객 지만원(75)씨를 상대로 5번째 검찰 고소에 나선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5일 오전 5·18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들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5·18의 원인이었던 사건의 핵심 인물은 진두환"이라며 "그들 부부는 과거 한 언론사와 5·18 때 북한 개입이 없었고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 아니라고 인터뷰했다"며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지씨의 새로운 '광수(5·18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부대의 소행)' 주장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씨의 변호인은 이날 관할 위반 주장을 철회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 '광수'로 지목된 증인들의 신문이 있다. 신문 내용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변호인은 오는 13일까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기로 했다. 5·18 왜곡 관련 재판은 오는 6~7일에도 이어진다.

8일에는 5월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제기한 '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7일에는 5월 단체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 대표로 있는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

이를 포함해 현재 법원에서는 지씨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5·18 왜곡 관련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등 민사소송 6건이 진행되고 있다.

지씨의 경우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8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북한과 관련해 자료를 제작했다고 주장한 지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해 10월에는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으로 참여한 박삼선씨 등 북한군으로 지목된 4명이 지씨를 2차 고소했다.

지난해 5월과 12월에는 시민군 기동타격대에서 지프차를 몰았던 김공휴씨, 옛 전남도청 정문을 지켰던 김선문씨 등 각각 8명, 3명이

당시 시민군, 지만원씨 상대 5번째 고소 예고 진두환 상대 사자명예훼손 고발...검찰 수사 중

3~4차 고소에 동참했다.

1·2·3차 고소 사건은 검찰이 허위 사실로 판단 지씨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4차 고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당시 시민군 2명이 지씨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지씨가 리성권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수석 대표로 지목한 홍모씨, 홍석일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대표단으로 꼽은 강모씨 등 2명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5·18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는 지씨의 주장에 대한 검찰 고소는 이번이 5번째다. 이와 별도로 윤정현 광주시장도

최근 서울지법에서 내건 5·18당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광주시장의 증언)'는 내용의 현수막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양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왜곡한 시민군을 찾아 고소를 이어갈 것"이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소송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폭염·덥다 더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5일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 용산역앞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부채질도 하고 손으로, 봉투로, 양산으로 열기를 가리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반공익적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의 쓴소리

"교직원 보수는 호남 최고인데, 학생들의 등록금은 지역대학 중 가장 높은 반공익적 대학이 조선대입니다."

조선대 법인이 제3기 이사회를 5개월째 구성하지 못하고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김창훈 제2기 개방이사가 "대학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정상화될 수 있다"며 자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이사는 5일 조선대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을 통해 "30여년 전 민립대 설립정신을 부정했던 경영진을 물리냈던 1·8항쟁의 결과물이 학생들의 복지,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직원들의 몸값만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최근 올라온 집행부 추경안을 보면 지난해 동결된 급여 소급인상과 올해 급여 인상분

등을 포함한 적립금 인출액이 300억 원이나 된다"며 "적금까지 깨면서 더 먹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왕성한 식욕을 보면 취업 걱정, 학자금 대출 걱정, 알바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안쓰러울 뿐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등록금 대비 80% 가까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명색이 민립대학인 조선대 학생의 장학금 지급률은 호남지역 대학 꼴찌 수준이다"며 "구성원들이 30년 동안 누적해 온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는 한 앞으로 급여삭감, 구조조정 등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현재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익이사제 도입은 도정만 찍고 회의비나 받아가던 관선 이사와 차이가 없고 구성원 배만 채우려는 이윤배반적 행태"라며 "조선대를 공영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들의 기득권 포기야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성원들의 급여 20~30% 가량 삭감해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도 조선대 교수들은 지역의 타 대학 교수들의 평균 급여보다 높다"며 "문재인정부의 사립대 공영화에 선장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일부 교수가 임의이사 체제로 가서 정관을 개정한 뒤 총장 등을 공익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견제, 감시기구에 집행부 수장을 앉히는 꼴"이라며 "대학자치운영협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대 법인 제2기 이사회 임기는 지난 2월25일 만료됐으나 대학운영권 다툼으로 현재까지 3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낮 도심 통학버스 의문의 돌진 10여명 사상

5일 낮 12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김모(57)씨가 몰던 25인승 어린이집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친 뒤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박모(84)·김모(71) 할머니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청주 모 교회 신도 5명 가운데, 정모(78) 할머니 등 3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승합차는 정차된 머스탱과 카니발 등 승용차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로 사창사거리 일대 차량 통행이 2시간여 동안 정체를 빚었다. 승합차에는 어린이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다.

승합차 운전사는 "차량 RIM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보행자가 없는 방향으로 차량 핸들을 급하게 꺾다가 차량을 잇따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사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사가 주장하는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지인 육아 블로그에 악성댓글 단 20대女

육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블로그에 욕설과 협박 등 악성 댓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A(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B(31·여)씨가 자신의 딸 사진 등을 올리는 육아 블로그에 7차례에 걸쳐 갖은 욕설과 '인제 김가다 지나치면 무슨 짓이라도 해줄게', '딸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육아 카페를 통해 B씨와 처음 알게 돼 실제 몇차례 만남을 가지기도 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B씨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올리는 것을 보고 더 우울해서 그런 댓글을 달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의 남편은 "처음에는 딸이 뽀샵했다는 정도의 댓글이 올라오다 점점 욕설과 협박의 강도가 심해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인데 우리 가족과 큰 연관이 없는 A씨가 범인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울산 관광호텔서 형수·조카 살해 40대 영장

울산 울주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호텔에서 업주인 형수와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께 울산 울주군 간절곶 인근의 한 관광호텔에서 업주인 형수 B(52·여)씨와 두 여조카(32·30)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B씨와 큰 조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은 조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형과 형수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에서 생활하며 10여년간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 경영이 악화돼 지난달 30일 일을 그만 둔 A씨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형 내외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을 먹고 와보니 형수와 조카들이 방 안에 있던 집을 밖으로 꺼내와 순간 잠을 수 없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앞서 범행 당일 오전 11시30분께 B씨가 A씨의 방에서 흉기와 노끈을 발견해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와 노끈을 압수해 돌아가지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식칼과 노끈을 다시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혼자 식사를 해결한 A씨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식칼을, 집을 싸기 위해 노끈을 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역광고 마케팅 전문 정보매체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